

“엔지니어링사는 지금...” 코너를 마무리하며...

introduction



권덕순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산 수자원부 전무
ds-kwon@hanmail.net



김상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kimsh@sangji.ac.kr

1. 시작과 마무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인데 어느덧 약 2년이
란 세월속에 신규코너인 “엔지니어링사는 지금...”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수자원학회 총회 자리에서 물과미래의 신임
편집위원장을 맡으신 김상호교수님의 제안을 통해 업
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며 상의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무
사히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사는 지금...”은 학계와 엔지니어링사
사이에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밑 걸음이 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도화 문용욱전무, 동부 이영식
전무, 삼안 문용주전무, 유신 서상원전무, 이산 박진

원상무, 평화 김광기전무 그리고 청명종합엔지니어링
자리를 옮기신 김영준대표님까지 모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아쉬움을 간직하며

당초 “설계사는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투표과정
을 통해 결정을 하였지만, 설계사가 엔지니어링사로
명칭 변경되면서 코너명은 “엔지니어링사는 지금...”
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엔지니어
링사에 대한 대학의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업무적 궁
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
고 있는 과업에 대한 소개와 시사성을 제시하였습니
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과 패턴이 유사해지는 문제로

인해, 22년도에는 엔지니어링사에서 근무하는 현업의 전문가가 각 직급에서 느끼는 보람과 소회를 작성하여 소개함으로써 대학의 토목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자원 분야의 미래 인재들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더 다가설 수 있는 내용으로 알차게 원고를 만들어 회원님들이 더 읽고 싶은 코너가 되었어야 되는데 현업에서 실무를 하며 좋은 원고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의 한계가 있었으며, 원고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소 부족했지만 바쁘신 가운데 “엔지니어링사는 지금...” 코너의 집필진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3. 앞으로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의 원고는 이 글을 마무리로 종료되지만, 우리 신규코너의 목적처럼 학계와 업계의 소통을 위해 지금까지 설계사는 무엇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 업무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우들에게는 수자원분야 설계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지 알리고자 하고,

교수님들에게는 설계사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전술한 내용 외에 주요한 업무들을 소개함으로써 업계의 근황을 알려드리고자 하며,

또한 일반 구독자님들에게는 국가기관 산업중 하나인 수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켜드리고자 했던 “당찬 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고는 아니지만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회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 신규코너인 “엔지니어링사는 지금...”을 애독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2023년 새로운 시작 앞에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